

## 중앙선 원주~제천 백운터널 중간 작업구 본선 관통

- 본선터널 양방향 굴착 본격 시작 -

강원본부(본부장 김영하)는 중앙선 원주~제천 철도 사업구간 중 초장대 터널인 백운터널(L=14.2km)의 중간 작업구를 '12년 11월에 착공하여 10개월만인 지난 9월 말에 본선까지 도달해 본격적인 터널굴착을 시작했다.

강원도 원주시와 충청북도 제천시에 걸쳐있는 백운산을 지하로 통과하는 백운터널은 초장대 터널로서 시공 중 공기 단축과 운영 중 비상대피·환기를 목적으로 중간에 작업구 2개소를 설치하며 이번에 그중 하나를 관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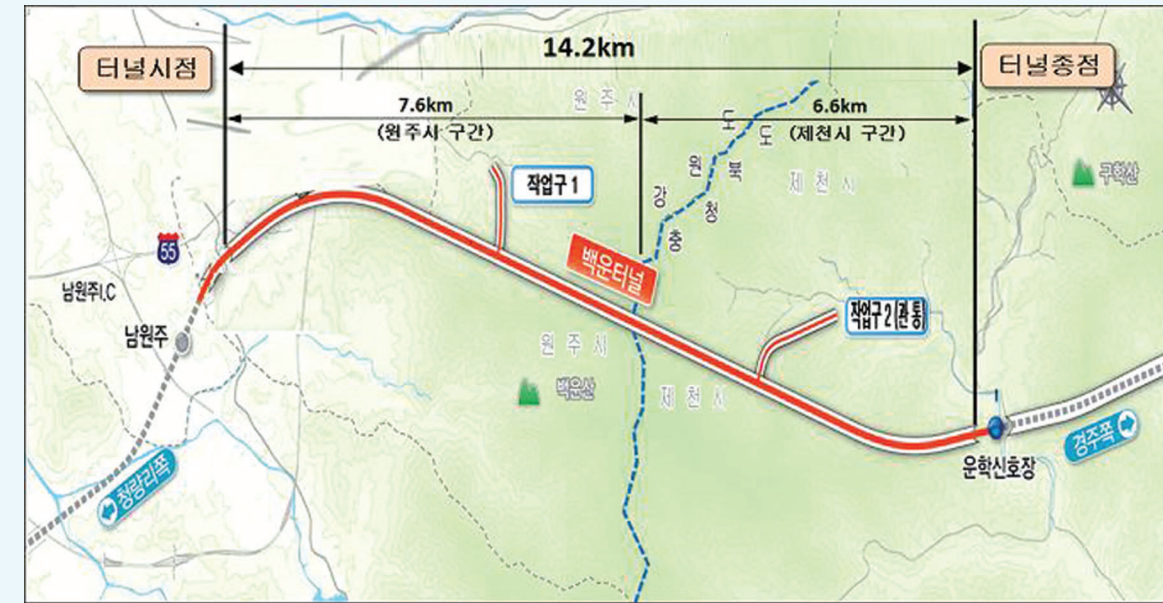
김명규 중앙선PM 부장은 "백운터널은 본선연장 14.2km 중 올해 2.5km를 굴착하여 2016년 7월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백운터널 굴착공사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축사 등

정온시설 통과 주변은 미진동 암파쇄공법, 다단발파를 적용하여 시공하고 있다.

2018년 사업이 완료되면 열차속도 증가로 운행시간이 대폭단축(40→19분)되어 수도권과 60분대로 연결됨으로써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본부 오재훈 기자〉



## 태백선 제천~쌍용 복선전철 개통 앞두고 전차선 가압

강원본부(본부장 김영하)는 태백선 제천~쌍용(L=14.3km)간 복선전철사업의 개통을 앞두고, 영업시운전을 위해 10월 15일 전차선로에 2만5000볼트의 고압전기를 가압했다.

제천~쌍용 복선전철사업의 전차선은 사용전 검사 및 내압시험을 거쳐 10월 15일에 가압됐으며, 이에 앞서 지역주민의 전차선로 감전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교통로 및 현장에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지자체 및 철도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 안전 홍보활동을 펼쳤다.

전차선 가압 이후에는 열차운행을 위해 시설물 검증시험을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시행하고, 10월 29일부터 11월 10일까지는 신설되는 제천 입석리간에서 영업시운전을 거쳐 11월 14일에 개통할 예정이다.

석조건 건설/기술처장은 "노반, 궤도공사에 이어 전기 분야 공사도 완벽하게 마무리하여 적기 개통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 사업의 개통으로 지역화물인 양회 및 무연탄 등의 수송이 더욱 수월해지고, 제천시는 철도노선의 외곽 이전으로 도시개발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본부 오재훈 기자〉



## 충청본부,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패 및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충청본부(본부장 노병국)는 10월 14일 '2013년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패 및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발표회는 15개 현장의 실패 및 우수사례 발표 및 전체 질의응답, 본부장 총평 등으로 진행됐고, 호남고속철도 1-4공구, 대전도심 통신공사(실패사례) 및 경부고속철도 6-3공구, 6-4B공구가 발표우수현장으로 선정됐다.

이번 발표회는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패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현장의 위험요인 사례를 도출하여 잠재하는 안전보건상의 문제점을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많은 현장 관련자들이 참여해 활발한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노 본부장은 총평에서 "운행선 인접공사보다 작업환경이 더 열악한 신설선에서 오히려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방심 속에 안전사고가 뒤따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사업 준공까지 더 이상의 사고가 없도록 노력해 달라. 내 집을 짓는다는 책임감과 후손에게 물려줄 자랑스러운 유산을 만든다는 사명감을 갖고 사업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충청본부 성동일 기자〉



## 1사1촌 결연마을 찾아 수확철 봉사활동 시행

경영지원실(실장 이계환) KR봉사단은 10월 11일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은 충남 논산시 황산별 참살이마을에서 가을 수확철을 맞아 콩 수확과 배추밭 관리 등 농촌봉사 활동을 펼쳤다.

KR봉사단은 구슬땀을 흘리며 주민들과 함께 콩을 수확하고, 농기계를 이용해 콩털기 작업을 수행하는 한편, 겨울 김장나눔 행사를 위해 지난 9월 파종한 배추밭 관리를 위해 오후 늦게까지 농사일에 매진했다.

경영지원실은 결연을 맺은 참살이마을에서 농사일손 보태기 봉사활동뿐 아니라, 직접 작물을 키우고 수확해 매년 불우한 이웃에게 전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도 직접 재배한 친환경 채로로 김치를 담가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사랑의 김장 나눔행사'를 11월 중 실시할 계획이다.



## 강원본부, '13년 연탄배달 봉사활동 참여

-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위해 구슬땀 -

강원본부(본부장 김영하) KR봉사단은 10월 8일 원주시 원동에 위치한 연탄은행에서 '2013년 사랑의 연탄 300만장 나누기 재개식' 행사에 참여해 인근 독거노인 가정에 연탄 500장을 배달했다.

KR봉사단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매년 지역사회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사랑의 연탄 기탁 및 배달 봉사활동을 시행하고 있으며, 밥상공동체 무료급식소 급식 및 내부환경 개선 활동도 함께하고 있다.

본부는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강원본부 오재훈 기자〉



## 충청본부, '함께 읽어요' 사보 촬영 후 책 기증

충청본부(본부장 노병국) 건설/기술처는 사보 '철길로 미래로' 251호(09·10월호) 촬영을 위해 서로에게 선물한 책 20여 권을 구독 후 KR 자료실에 기증했다.

건설/기술처 직원들은 사보 속 '함께 읽어요' 코너의 촬영을 위해 서로에게 '승자의 안목' 외 7권을 선물했고, 독서의 계절 가을을 맞아 선물을 받은 책뿐만 아니라 개인 소장 책까지 서로 교환하며 책임기 문화를 조성했으며 더욱 많은 사람들과 이를 공유하기 위해 책을 기증하기로 결정했다.

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책과 함께, 나눔과 함께' 라는 슬로건으로 조직 문화 개선 등을 위해 앞장 서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충청본부 조성희 기자〉



계시판

## 주요뉴스 ('13.10.14~'13.10.20)

- 철도공단, 미국 고속철도 건설 사업 교두보 확보  
(한국일보14B, 파이낸셜26, 서울신문11, 대전일보10, 충청투데이09)
- 3주간 역대 최대 630개 기관 감사... 올해도 수박겉껍질 불보듯 (한국일보04)
- 공직기강 틀어잡고 예산누수 틀어막고 청조경제 지원한다 (국민일보03)
- 정부3.0, 공공정보 민간 활용 높인다 (파이낸셜28)
- 태백선 제천~쌍용 복선철 내달 14일 개통 (충청투데이19A)
- 새대구역사 건립 추진 탄력 (서울신문12)
- 땅값보다 비싼 '데크' 건축비 절도위 행복주택 1만호로 줄듯 (매일경제04)
- SOC 노후화 '눈감은' 국토부 (세계일보09)
- 철도요금 산정기준 분류, 인상 길 된다 (경향신문02)
- '매월 20억씩 적자' 의정부 경전철 업체 "순실금 보전 안되면 사업 포기" (서울신문10)
- 공공기관 76곳 고용세습 조항 (매일경제31)
- 공직자윤리법 하점 악용... 전관예우 '특혜' (서울신문04)
- 첫삽 뜨는 동대구환승센터 들쭉이는 동대구역 일대 (한국경제30)
- 전철 승강장 폭 줄이고 철도 시설 재정비... 2년간 1조7300억 절감 (조선일보C07)
- 끊임없는 혁신으로 안전한 철도, 편리한 생활 추구 (동아일보E03)
- 野 "국토부, 철도 민영화 여전히 추진중" (파이낸셜06)
- 짝퉁 부품으로 달린 KTX (동아일보12)
- 철도공단 지속가능성 지수 1위 (충청투데이08)
- KTX 포항직결선, 마산터널 관통 (경북일보06)
- 조달청 '4대강 담합' 15개 건설사 입찰 제한 (서울신문20)
- 공공 비정규직 증가율, 정규직의 5배 (서울신문02)
- 영월~제천 태백선 복선전철 내달 개통 (강원일보02)
- 지식경쟁이 혁신 이끄는 힘 (매일경제12)
- 수주 급감에 공공입찰 스톱... 건설업계 '시련의 계절' (국민일보15)
- 정부부처 20%·공공기관 40%, 영세업체에 대금 지급 지령 (조선일보06)
- 대형안전사고 원인제공사 대검, 구속수사 원천시달 (파이낸셜27)